



# 차이나

CHINA Market Watch

## 마켓 워치



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

전화 : 86-10-6505-2672

이메일 : beijingk@kita.net

## 1 中, 상반기 GDP 성장률 5.0%...네이멍구는 6.2% 높은 성장세

-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1~6월 중국의 GDP는 전년 동기대비 5.0% 성장한 61조 6,836억 위안이며, 광둥성은 6조 5,000억 위안으로 가장 높은 GDP를, 네이멍구는 6.2%로 가장 높은 성장세를 기록
- 장쑤성, 산둥성, 저장성, 허난성의 GDP는 각각 6조 3,000억 위안, 4조 7,000억 위안, 4조 1,000억 위안, 3조 1,000억 위안이며 쓰촨성, 후베이성, 푸젠성, 후난성, 안후이성, 상하이시, 베이징시, 허베이성 등의 GDP는 2조 위안을 돌파
- 광둥성은 선진 제조업(先进制造业)\*과 첨단 제조업(高技术制造业)\*의 부가가치가 각각 8.1%, 13.0% 증가, 이 중 첨단 전자정보, 항공우주 설비 제조업이 각각 16.3%, 20.9% 증가. 첨단기술 제품 생산량도 빠르게 증가하여 신에너지차, 스마트폰, 집적회로, 산업용 로봇 생산량이 각각 25.7%, 23.4%, 31.1%, 37.6% 증가
  - \* 선진 제조업 : 전자정보, 컴퓨터, 기계, 재료 및 현대 관리기술 등 방면에서 첨단기술 성과를 접목한 제조업
  - \* 첨단 제조업 : 의약품/의료기기, 항공우주 설비, 전자통신 설비, 컴퓨터/사무용 설비, 정보화학품 등

자료원 : 중국상보망

<https://www.zgswcn.com/news.html?aid=203491>

## 2 中, 1~6월 해외직접투자(ODI) 전년 동기대비 16.6% 증가

-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~6월 중국의 비금융 부문 해외직접투자(ODI)는 전년 동기대비 16.6% 증가한 726억 달러, 이 중 일대일로 주변국에 대한 투자는 9.2% 증가한 155억 달러
- 1~6월 해외 도급공사 매출은 2.2% 증가한 723억 달러, 신규 계약액은 22.0% 증가한 1,155억 달러이며, 이 중 일대일로 주변국으로부터 수주한 도급공사 매출은 0.7% 증가한 589억 달러, 신규 계약액은 18.5% 증가한 934억 달러임

자료원 : 인민일보 해외판

[http://paper.people.com.cn/rmrbhwb/html/2024-07/26/content\\_26071198.htm](http://paper.people.com.cn/rmrbhwb/html/2024-07/26/content_26071198.htm)

### 3 中, 상반기 온라인 소매판매액 9.8% 증가

■ 중국 상무부 전자상거래사(司)에 따르면 올해 1~6월 중국의 온라인 소매판매액은 전년동기대비 9.8% 증가한 7조 1,000억 위안이며, 이 중 상품 온라인 소매판매액은 8.8% 증가한 5조 9,600억 위안으로 전체 소비재 소매판매액의 25.3% 차지

- 특히 디지털 상품 소비, 서비스 소비, 이구환신(以旧换新, 낡은 것을 새것으로 교체) 정책 적용 상품 소비가 온라인 소비의 새로운 성장 포인트로 부상
  - 인공지능(AI) 학습기, 스마트 웨어러블기기 온라인 판매액이 각각 136.6%, 31.5% 증가, 온라인 관광, 요식업 소비가 각각 59.9%, 21.7% 증가. ‘이구환신’ 정책 혜택으로 냉장고, 세탁기, 스마트폰, TV 소비가 각각 82.1%, 70.4%, 63.9%, 54.3% 급증

#### 〈인공지능 학습기, 스마트 웨어러블기기 인기제품〉

아이플라이텍(科大讯飞)	부부가오(步步高)	화웨이(HUAWEI)	샤오미(Xiaomi)
			
- 제품명 : 인공지능 학습기 P30 - 특징 : 일대일 레슨, 시력 보호 - 판매가 : 2,999위안	- 제품명 : 인공지능 학습기 S8 - 특징 : 원어민 교사 영어 강의, 스마트 학습 - 판매가 : 6,299위안	- 제품명 : 스마트워치 GT4 - 특징 : 심박수 체크, 건강 모니터링 - 판매가 : 1,288위안	- 제품명 : 스마트워치 4 - 특징 : 건강 모니터링, Bluetooth 통화 - 판매가 : 499위안

- 최근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가 480억 위안에 달하며 ‘가상 구매’, ‘가상 화장’, ‘AI 고객센터’, ‘무인운전’ 등이 등장하면서 전자상거래 분야가 ‘스마트 전자상거래’ 단계로 도약하는 추세
- 국제 협력 측면에서 중국은 세르비아, 바레인, 타지키스탄과 ‘전자상거래 협력 양해각서(MOU)\*’를 체결하여 ‘실크로드 전자상거래’ 파트너 국가가 33개국\*으로 확대
  - \* 전자상거래 협력 양해각서(MOU) 주요내용 : 전자상거래 협력체계 구축, 정책 및 경험 교류 강화, 지방간 협력 촉진, 연구 및 인재양성 사업 공동 추진. 중소기업과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 간 매칭 촉진 등
  - \* ‘실크로드 전자상거래’ 파트너 국가(33개국) : 인도네시아, 필리핀, 라오스, 태국, 파키스탄, 싱가포르, 벨라루스, 세네갈, 우즈베키스탄, 바누아투, 사모아, 콜롬비아, 이탈리아, 파나마, 아르헨티나, 아이슬란드, 르완다, 아랍에미리트, 쿠웨이트, 러시아, 카자흐스탄, 오스트리아, 헝가리, 에스토니아, 캄보디아, 호주, 브라질, 베트남, 뉴질랜드, 칠레, 세르비아, 바레인, 타지키스탄

자료원 : 중국경제망

[http://www.ce.cn/xwzx/gnsz/gdxw/202407/19/t20240719\\_39075422.shtml](http://www.ce.cn/xwzx/gnsz/gdxw/202407/19/t20240719_39075422.shtml)

### 4 中, 상반기 소프트웨어 산업 매출 11.5% 증가

■ 중국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올해 1~6월 중국 소프트웨어 및 정보기술(IT) 서비스 매출은

### 전년동기 대비 11.5% 증가한 6조 2,350억 위안

- 소프트웨어 제품 매출은 9.0% 증가한 1조 3,969억 위안으로 전체 매출의 22.4% 차지. 이 중 산업용 소프트웨어 제품 매출은 9.0% 증가한 1,324억 위안, 베이직 소프트웨어 제품 매출은 10.7% 증가한 850.4억 위안임
- 정보기술(IT) 서비스 매출은 12.6% 증가한 4조 2,224억 위안으로 전체 매출의 67.7% 차지. 이 중 클라우드 및 빅데이터 서비스 매출은 11.3% 증가한 6,545억 위안, 집적회로 설계 매출은 15.1% 증가한 1,642억 위안,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술서비스 매출은 5.8% 증가한 5,162억 위안임
- 징진지(京津冀, 베이징·톈진·허베이) 지역 소프트웨어 매출은 15.8% 증가한 1조 6,568억 위안, 장강삼각주(长三角, 상하이·장쑤·저장·안후이) 지역 소프트웨어 매출은 7.6% 증가한 1조 7,203억 위안으로 각각 전체 매출의 26.6%, 27.6% 차지
- 15개 부성급(副省级) 도시\*의 소프트웨어 매출은 10.0% 증가한 3조 87억 위안이며, 이 중 샤먼, 칭다오, 선전, 지난, 우한의 소프트웨어 매출 증가율은 전국 평균 증가율을 상회
- \* 15개 부성급 도시 : 광저우, 우한, 하얼빈, 선양, 청두, 난징, 시안, 창춘, 지난, 항저우, 다롄, 칭다오, 선전, 샤먼, 닝보

자료원 : 중국신문망

<https://www.chinanews.com/cj/2024/07-26/10257981.shtml>

## 5 中, 제7회 상하이 중국국제수입박람회(CIIE) 준비 박차

- 제7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(CIIE)가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상하이시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올해 ‘혁신 인큐베이팅 존’을 특별 운영할 계획. 현재까지 부스 계약 면적은 36만 제곱미터, 50여개 국가와 국제조직이 참가를 확정
- ‘신소재 전시존’을 최초로 설치하고 ‘혁신 인큐베이팅 존’에서는 디지털 경제, 녹색 저탄소, 생명과학, 제조기술 등 4대 분야 스타트업 대상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
- 올해 노르웨이, 베냉, 부룬디, 유니세프 등의 국가와 국제기구가 처음 박람회에 참가할 계획임. 150개 기업이 7년 연속 전시회에 참가했고, 미쓰비시상사, NTT(일본 통신사) 등의 글로벌 500대 기업은 올해 처음으로 전시회에 참가
- 신소재 전시존에서는 니폰페인트(일본)와 엔비디아(미국), 모빌리티 전시존에서는 애플(미국)와 알스톰(프랑스) 등 업계 선도기업들이 부스를 운영할 계획

자료원 : CCTV넷

<https://news.cctv.com/2024/07/24/ARTIUkaWKNKXd4XOsrwvfy1X240724.shtml>

## 6 中, 하반기 강재 수요 증가 예상

- 최근 산업정보포털 상하이강렌(上海钢联)에서 주최한 '2024 마이 철강(我的钢铁)' 연례회의에 참가한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강재 수요가 하반기에 개선될 것으로 전망
  - 1~6월 중국의 강재 소비량은 4억 7,800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.3% 감소. 자동차, 조선, 가전, 컨테이너 분야 소비는 양호한 반면 부동산, 인프라 건설 분야는 부진
  -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신에너지, 신소재, 고급장비 제조 등 신산업 성장이 강재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고 밝힘
  - 한편 상하이강렌 관계자는 올해 3대 프로젝트(성중촌 재개발, 보장형 주택 건설, 공공 인프라 건설) 추진과 대규모 설비 교체로 강재 소비량이 각각 1,000만 톤, 500만 톤 증가하고 하반기에 대부분의 수요가 분출될 것으로 분석

자료원 : 상하이증권보

<https://www.cnstock.com/commonDetail/219890>

## 7 中, 상반기 게임시장 매출 역대 최고치 달성

- 중국 게임출판업무위원회에 따르면 1~6월 중국의 게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.1% 증가한 1,473억 위안, 게임 이용자수는 0.9% 증가한 6억 7,400만 명으로 역대 최고 기록
  - 모바일 게임 매출이 전체 매출의 73.0%를 차지, 해외시장 모바일 게임 매출 중 미국, 일본, 한국 시장에서의 매출이 각각 33.0%, 15.7%, 8.8%를 점하며 전체 해외 매출의 57.5%를 차지
  - e스포츠 게임 매출은 7.2% 증가한 691억 위안으로 주요기업의 신게임 출시로 매년 성장세를 유지

자료원 : 평파이신문

[https://www.thepaper.cn/newsDetail\\_forward\\_28190743](https://www.thepaper.cn/newsDetail_forward_28190743)

## 8 中, 올여름 무설탕 차음료 인기

- 최근 중국 시장에서 건강·영양·외모관리 등의 요인으로 무설탕 차음료가 인기. 위엔치선린(元气森林), 농부산취안(农夫山泉), 동평음료(东鹏特饮), 캉스푸(康师傅), 통이(统一), 와하하(娃哈哈) 등 많은 음료 브랜드가 무설탕 차음료를 출시
  - 빅데이터분석회사 마상잉(马上赢)에 따르면 2024년 4~5월 무설탕 차음료 판매액이 전년

동기대비 14.3% 증가

- 컨설팅기관 이어우즈쿠(亿欧智库)가 발표한 ‘2023년 무설탕 차음료 산업백서’에 따르면 2022~2027년 중국의 무설탕 차음료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10.9%로 2025년과 2027년 시장규모는 각각 102억 위안, 124억 위안에 달할 전망

〈징둥(JD) 플랫폼에서 인기인 무설탕 차음료〉

농부산취안(农夫山泉)	위엔치선린(元气森林)	귀즈수려(果子熟了)	랑차(让茶)	유충치(有丛气)
				
- 원료 : 100% 차추출액 - 특징 : 0칼로리, 무지방, 무향료, 무방부제 - 판매가 : 6위안	- 원료 : 울무살, 팔 - 특징 : 무설탕, 무향료, 무방부제 - 판매가 : 4.4위안	- 원료 : 물, 찻잎, 꽃잎 - 특징 : 무설탕, 0칼로리, 무지방 - 판매가 : 5위안	- 원료 : 100% 차추출액, 매실액 - 특징 : 무설탕, 0칼로리, 무방부제 - 판매가 : 4위안	- 원료 : 물, 우롱차잎, 비타민C - 특징 : 무설탕, 0칼로리, 무지방, 무향료, 무방부제 - 판매가 : 5위안

자료원 : 증권일보

<https://capital.huanqiu.com/article/4lisbrKtuEo>

9 中 태양광 회사, 해외시장 진출 가속화

■ 중국내 태양광 시장 경쟁이 심화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이 가속화

- 7월 16일, 징커에너지(晶科能源) 자회사 징커중동(晶科中东)은 사우디 국부펀드(PIF) 자회사 및 Vision Industries Company와 계약을 체결하고 사우디에 고효율 배터리 및 모듈 프로젝트(투자액 9.9억 달러, 연간 생산능력 10GW) 건설 계획을 발표. 징커에너지는 중동에서 이미 70%의 시장점유율을 차지
- 이 외 TCL중환(中环), 양광전원(阳光电源) 등도 사우디로부터 대규모 수주를 받았거나 태양광 저장시설 관련 프로젝트에 공동 투자한다고 발표
- 7월 25일, 천다주식회사(钧达股份)는 오만 수하르자유무역구에 2.8억 달러를 투자하여 2025년까지 연간 생산능력 5GW 규모의 배터리 생산기지 건설 계획을 밝혔고, 중국전력건설회사(中国电建)의 아부다비지사는 아지반(阿吉班)태양광프로젝트홀딩스와 7.6억 달러 규모의 EPC(설계·조달·시공) 계약을 체결
- 신재생 에너지 조사회사인 인포링크 컨설팅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동 지역의 태양광 수요는 20.5G~23.6GW이며, 향후 태양광 수요가 지속 성장할 전망

자료원 : 중국증권보

[http://www.ce.cn/cysc/ny/gdxw/202407/30/t20240730\\_39086577.shtml](http://www.ce.cn/cysc/ny/gdxw/202407/30/t20240730_39086577.shtml)